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 공공갈등 예방·해결 역량 강화 위한 전문가 교육 실시

행복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5월 2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의 서정철 연구원을 초빙해 진행되었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24년, ’25년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교육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상기 (044-200-30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044-200-3052)



<행복청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교육을 실시하였다>